‘제주국가생약관리센터’ 내년 준공 가시화

식약처, 2021년 예산 당초 34억→156억 확대 조정
서귀포시 생약·바이오산업 메카 중심축 역할 기대

올해 착공한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건립사업이 내년도 예산 확보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1년도 예산안이 올해 5592억원보다 452억원(8.1%) 늘어난 6044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제주 관련 예산인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이하 제주센터) 준공에 따른 사업비가 당초 34억원에서 156억원으로 확대 조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5월 온라인 기공식을 가진 제주센터는 현재 서귀포시 상효동 4만6882㎡(약 1만4000평)에 들어서며 2021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257억원 규모다.

제주센터는 아열대성 생약자원을 재배하는 재배장과 온실·생약표본 등을 보존 연구하는 연구동, 표본 전시 및 체험활동을 위한 전시동으로 구성된다. 전시체험관은 생약과 한약 등을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제주센터의 신축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아열대성 생약 자원을 확보·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센터는 지역에 특화된 아열대 생약을 재배·관리하고 농가에 분양할 예정이며 수입 생약 대체를 위한 효능물질 연구, 해외유입 생약자원 안전관리 체계 마련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자생하는 동·식물 등을 활용해 표준생약을 제조하고, 아열대 생약 기준규격을 만들어 해외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우리나라 종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아열대성 생약 자원을 확보해 식품·화장품 제품화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아열대 생약 재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예상된다. 서귀포지역이 생약·바이오산업 메카로서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나고야의정서 대응과 국가생약자원 관리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제주센터 유치 및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섰다.

현재 국내에는 강원도 양구와 충북 옥천 등 2곳의 생약자원관리센터가 운영 중이다. 센터는 생물자원 활용을 통해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는 지침인 국제협약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면서 추진이 시작됐다. 백금탁기자

제주도 공공데이터, 뉴딜 공모사업 선정

도 “어린이 안전지도·무장애 여행 데이터 등 구축”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뉴딜 공모사업 중 기업매칭 지원사업 분야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국비 12억20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빅)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및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수요기관과 데이터 구축·가공이 가능한 IT기업 매칭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국비 지원된다.

제주도는 지역기업 중심으로 매칭해 총 5건의 과제를 신청한 결과 5건 모두 선정돼 전체 공공기관 중 최다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선정된 과제는 어린이 안전지도 데이터 수집 및 분석결과 도출, 어린이보호구역 공간정보 구축, 무장애 여행 데이터 구축, 제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민간 데이터 융합 고도화, 제주 디지털 트윈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이다.

또한,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과 연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지역인재로 구성된 57명의 인턴이 참여하게 되며, 구축된 데이터는 연말 이후 공공데이터 포털 및 제주데이터 허브를 통해 개방할 계획이다.

노희섭 도 미래전략국장은 “앞으로도 정부시책에 발맞춰 활용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구축·개방하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2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열흘만에 58% 지급됐다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신청 열흘 만에 도민 58%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시작한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2일까지 열흘간 도민 57.7%에게 지급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16만194세대에 총 390억7400만원이다.

도는 오는 7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현장방문 접수를 시작한다. 현장방문 신청은 오는 11일까지로, 세대주(신청인)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된다.

14일부터는 5부제가 해제된다. 현장방문 신청기간에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행복드림포털’(https://happydream.jeju.go.kr/)을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5부제는 당초 예정보다 일주일 앞당겨 5일부터 해제된다.

지원금 신청대상은 7월 29일 0시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세대와 외국인등록 명단에 등재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이다.

또한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에 미등재된 출생자(7월 29일 0시 이전 출생)와 결혼이민(F-6) 이외의 체류자격을 지닌 결혼이민자 등도 지원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1인당 10만원이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제주지역 양식업계 피해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 사진은 지붕이 전파된 제주시 구좌읍 소재 한 양식장. 이상국기자

태풍 ‘마이삭’에 양식업계도 피해 속출

초속 30~40m 강풍에 지붕 뜯기고 흙탕물 유입돼 수산물 폐사

제9호 태풍 ‘마이삭’은 제주지역 양식업계에도 큰 피해를 남긴 것으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 순간최대풍속 초속 30~40m의 강풍에 양식장 지붕이 뜯겨져 나가는가 하면 수조에 흙탕물이 유입되면서 넙치 등 수산물이 폐사하는 등 피해가 막대할 전망이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양식장 피해만 해상가두리양식장 1곳과 육상양식장 16곳 등 17곳에 이른다. 현재 피해접수와 확인작업이 진행중이라 시설물과 넙치 등 정확한 피해규모는 파악이 안될 정도다.

구좌읍 종달리 한 양식장은 2800㎡ 규모의 하우스철골구조물이 강풍으로 완파되는 피해를 입었다. 구좌읍 지역에선 한동리와 평대리 등 8곳의 양식장에서 태풍 피해가 접수되는 등 피해가 집중됐다. 또 한림 4곳, 한경 3곳, 조천 1곳 등 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태풍이나 호우로 인한 사유재산피해 신고는 재해 종료 후 10일 내 신고하도록 돼 있어 앞으로 전체적인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3일부터 피해신고가 접수된 양식장을 현장방문해 정확한 피해규모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중”이라며 “앞으로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종교·다중시설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출입자 명부 작성 등 확인

종교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서귀포시는 오는 20일까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PC방·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도내 지역감염 사례가 지속 증가하는 속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방역 행정조치 발령에 따른 조치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종교시설, PC방·노래연습장 등 모두 316곳이다. 서귀포시는 이 기간 ▷출입자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비치 ▷발열체크 ▷2m 이상 간격두기 등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서귀포시는 종교시설의 경우 감염확산 우려가 높은 소규모 시설을 중점 점검하며, 주일 정규예배를 실시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비대면 예배를 강력 권고한다. 정규예배 외 각종 모임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현장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와 함께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적용시설에 종교시설 및 PC방·공연장을 포함함에 따라 이용자들이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영종기자

임산부에 친환경농산물

제주시 11억여원 들여

제주시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 국민건강과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사업비는 11억2700만원이 투입된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산부다. 신청일 기준으로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수혜자는 중복지원이 제한된다.

임산부에게 12개월동안 48만원 상당(본인부담 20% 포함)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는데, 희망자는 12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임신·출산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공급업체의 인터넷쇼핑몰에 가입 후 원하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상품을 주문하고, 매월 초 배송업체를 통해 받아보게 된다. 현재까지 1746명에 1억7800만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가를 살리고,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1석2조의 사업인만큼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문미숙기자

진정한 제주흙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페르카 효과
높은 저장성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강력한 라임효과
뿌리혹병의 경감

YouTube 석회질소 검색

코코리 입상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용량 : 20kg

달팽이추출물 (핵심물질):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율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PGA: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NAVER Daum 코코리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농업인이라면 이 광고를 보셔야합니다

감귤·만감 하우스 농가 ※일조가 모자랄때: 광합성 작용을 위해 하우스 천정으로 살포 =해피한그린 1병(50말)을 일주일 간격 2회→당 상승과 연관이 있으므로 꼭 살포할것

키위농가 ※건물중을 높이기 위해 하이휴믹(천연가리)관주: 1000평에 500g을 100말에 희석하여 한달간격 2회

양배추·양파·브로콜리 농가 ※육묘 키울때: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해 V패스(500㎖) 12.5말로 2~3회 살포
※정식할때: V패스를 조루로 충분히 관주후 파종

마늘농가 ※마늘종자소독: 파종 하루전 키토산(2ℓ)25말로 희석하여 침지하거나 조루로 충분히 묻혀 관주후 다음날 파종 = 종자를 막형성시켜 세균이 침범하지 않으며 뿌리가 나오면 미생물 먹이가 되어 발아가 균일하게됨

감자농가 ※더뎅이병과 시들은병 예방을 위해 토양소독: V패스(2ℓ)+썰파고 (8ℓ)를 50말에 희석 500평 관주후 경운

제품소개
■ 해피한그린 : 희토류가 들어있어 엽록소 함량 증가로 광합성 능력을 회복
■ 하이휴믹 : 부식산에서 추출한 고농축 천연가리
■ V 패 스 : 희토류와 양자에너지로 합성된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제
■ 썰 파 고 : 나노유황과 콜라겐으로 만든 균 예방제

(주)포트라 제주지사 곰탱이감귤유통상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